

### I. 서론

본 서는 본래 사무엘상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 칠십인역(LXX)이 사무엘서를 처음으로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무엘하는 다윗 시대의 찬란한 역사를 기록한다. 유대 지역을 통치한 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명실상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다윗의 간음 및 살인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매서운 심판마저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 II. 저자와 기록연대

탈무드나 유대인은 사무엘이라 하나 사무엘의 죽음 등 그후 사건으로 보아 저자는 미상이다. 나단과 갓 혹은 에스라 라는 설도 있다. 기록연대는 왕국분열 (주전 922년) 이후 (삼상 27:6의 유다 왕들등에 근거)이다.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가는 과도기의 사건을 기록했다.

### III. 사무엘서의 교훈

(1) 본서는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 인과응보가 이루어짐을 볼수 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커다란 죄악 때문에 그의 집에 칼이 영영히 떠나지 않는(삼하12:10) 징벌을 받았다. 즉 그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고(삼하12:15-19), 그의 딸 다말이 오빠인 압논에게 강간당하고 압논은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삼하 13장) 엄청난 비극을 맛보았던 것이다.

(2)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된다.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오려고 했으나 결국 옷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삼하6:6,7). 그러나 석 달 뒤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오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법궤를 옮겨 올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3)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

부정한 간통과 배신, 살인에 대한 형벌이 무겁게 다윗을 억눌렀다. 이때에 나단 선지자가 작은 양 새끼에 대한 비유로 그를 질책하자 그는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시편 51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노래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의식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간구를 해야 됨을 깨닫게 해준다.

(4) 자비(선)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다윗은 자신이 신뢰하고 아꼈던 압살롬이 죽자 그가 비록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한다 (삼하18:33).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삼하9:6-8). 옷사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께 속죄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방지하였다.

### IV. 내용 구성

내용적인 면에서 다윗의 승리와 그의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 맺게 되는 다윗의 재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본 서를 약간 세분화해 본다면 1) 다윗왕의 즉위를 (삼하1:1-5:6), 2) 다윗 왕권의 확립 (삼하5:7-6:23), 3)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삼하7-10장), 4) 다윗왕의 범죄와 고난 (삼하11-20장), 5) 다윗왕의 말년 (삼하21-24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르게 구성을 보면 1) 다윗의 등극과 정복전쟁 (1-10장), 2) 다윗의 범죄와 시련 (11-20장), 3) 다윗 치세 관련 (21-

24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 V. 사무엘하를 통한 언약

다윗은 구약성경의 인물들 중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인간으로 패역한 범죄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실된 회개로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열정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특별히 그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받게된다. 이 언약으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였으며, 이 언약은 마침내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이러한 구속사관을 지니고 있는 사무엘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고하고 있으며, 고난중에도 왕권을 확립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하는 왕조의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난과 수난을 겪으시면서도 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깨닫게 한다.

#### VI. 사무엘하의 주제들

- 1) 다윗의 인생 여정의 성공과 실패, 회노애락은 결국은 인생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실례이다.
- 2) 다윗의 범죄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한 죄악이 다른 죄악을 유발하는 것을 보인다.
- 3)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다 풍성하시다.
- 4)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후손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는 다윗 언약을 체결한다.
- 5) 위대한 왕 다윗도 범죄하고 계속해서 범죄의 결과에 시달렸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 VII. 사무엘하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영원한 메시아 통치의 예표인 옛 메시아 다윗의 통치를 보인다. 다윗의 통치의 축복은 정의, 지혜, 단합, 용기, 자비 등으로 요약된다.
- 2) 다윗 언약 (7:4-14): 영원한 왕권을 주신다.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 VIII.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 1) 핵심 단어: 다윗 언약 (7:8-16)
- 2) 핵심 절: 7:12-13, 22:21
- 3) 핵심 장: 11장

#### IX. 사무엘하의 의미

1) 신권을 통한 왕정의 발전: 다윗 왕정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발전된다는 예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흐르

고 있는 메시아의 예언적인 예시를 묘사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역력히 나타난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역력하게 나타난 곳은 다윗 왕을 통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예표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한 번도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 오심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인생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참다운 지혜이다.

3) 하나님의 의의 승리: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엄한 공의가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는 다르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섭리: 사울왕의 죽음과 다윗 왕의 등극, 죄악, 발전 등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사람의 죽음과 삶을 이루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약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만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지혜요 참 기쁨이다.

#### 5) 저작 관점

(1) 연대적 전기가 아님.

(2) 세상 왕국에서의 하나님 나라

(3) 구속사적 구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계약을 체결하신다. 그것은 다윗의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은 인간의 죄악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그리스를 통하여 일점 일획의 변함도 없이 완전히 이루셨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따라서 본 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본 서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